



**동심의 눈에 비친 광주도시건축**  
21일 광주시 서구 차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3 광주건축도시문화제'에서 초등학생들이 그린 500여점의 건축도시 그림이 전시돼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주최로 오는 24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선 광주시 건축상 수상작과 광주·전남현상설계당선작 등을 볼 수 있으며, 특별전을 통해 안토니 가우디의 건축물 사진 50여점과 바르셀로나의 도시 설계 관련 전시물도 만날 수 있다.  
/4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우후죽순 복지재단 '기대반 우려반'

목포·광양·신안 이어 광주시·전남도·광주 동구·여수·담양도 설립 나서

전남복지재단이 직원 공개 채용을 하는 등 광주·전남지역에 복지재단 설립 붐이 일고 있다. 현 정부 들어 다양한 복지 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노령화·다문화 등 복지 수요가 더욱 세분화되면서 복지재단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무분별하게 복지재단을 추진하고 있어 "비슷한 기능의 복지 기구만 늘린다"는 지적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 사람 심기'로 끝날 우려도 나오고 있다.

◇너도 나도 복지재단 설립=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이 지역에는 현재 목포복지재단, 광양시나눔복지재단, 천사의심 신안복지재단 등 지자체가 출연한 3개의 복지재단이 있다. 또 광주시와 전남도, 광주 동구, 여수시, 담양군 등이 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앞다퉀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있는 것은 민간의 힘을 빌려 최대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자는 취지다. 정부와 지자체의 법적 서

**기금 모금·배분 자유로워**  
**민간 힘으로 복지수요 충족**

**기존 기관과 기능 중복**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자리 만들기 눈총도**

재단 설립 추진위원회도 발족했다.

◇기능 중복 '복지 옥상옥' 우려도 =지자체의 무분별한 복지재단 설립은 또 다른 복지 단체를 만들어 예산을 낭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다. 지자체 출연금을 지원받아 탄생한 복지재단이 인사 청탁 등 지자체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광주복지재단 설립 과정에 지역 사회복지사들이 이 같은 이유로 거세게 반발하자 광주시는 신규 인력 채용을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뤘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인사청탁'을 사전에 막겠다는 복안이다.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오랜 준비 없이 각각 복지재단을 만들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자원봉사센터 등과 업무가 중복되는 것도 부정적 요인이다.

현재 전남의 기초단체가 운영 중인 3개 복지재단의 기금은 20억~27억 원 규모로, 직원수는 2~5명에 머물고 있으며 사무국장은 전직 시의원·

공무원 등이 맡고 있다. 무분별하게 설립돼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비전문가들이 중책을 맡게 되는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다.

사회복지시민단체인 '복지공감' 박종민 사무국장은 "복지재단은 복지 관련 정책 연구와 지역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발굴, 기금 모금·배분 등 특화된 복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광복복지재단은 이 같은 기능을 강화하고, 기초단체 복지재단은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의 방향 설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2014 학부 신입생모집**  
**정시모집**  
2013년 12월19(목)~23일(월)  
**광신대학교**  
입학문의(062)605-1114

## 여수산단 화인케미칼 문 닫나

경영난에 연말 폐업 통보...전직원 93명 정리하고 위기

여수국가산단에 있는 KPX화인케미칼 직원 전원이 정리해고될 위기에 놓였다. 회사측은 올 연말 회사 문을 닫겠다며 다음달 4일 20~25명에게 해고통보를 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국가산단 내 업체 중에 폐업한 업체는 지금까지 없었으며, 화인케미칼이 문을 닫을 경우 산단 내 원료 공급업체 등의 타격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화인케미칼과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화인케미칼이 수년째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장 3개동(연산 15만) 가운데 2개동의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현재 가동률은 30%대 수준이다.

이에 따라 회사측은 최근 직원들에게 "12월31일 회사문을 닫겠다며, 전 직원 93명을 정리하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노조는 "무작정 정리해고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공이 해야 한다면 단체협상대로 명예퇴직을 시행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노사 양측은 21일 오전 경영상 해고를 위한 특별 교섭을 진행했지만 별다른 해법을 찾지 못했다.

회사측은 지난 14일부터 희망퇴직자를 모집했으나 최근까지 2명 밖에 신청하지 않아 다음달 4일 공장가동 최소인원인 65명선만 유지하기 위해 우선 20~25명을 해고하겠다는 입장이다.

화인케미칼의 갑작스러운 경영난은 폴리우레탄 원료로 주 생산품인 TDI(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의 국제가격이 하락하면서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화인케미칼측은 TDI 원료인 DNT(디니트로톨루엔) 공급사인 휴켄스와 2년여 동안 원료 공급 단가를 협상하고 있다. 그러나 화인케미칼은 오는 12월31일 이후에는 휴켄스로부터 원료공급을 받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인케미칼이 공장 문을 닫을 경우 여수국가산단 내 업체 중에서는 최초의 폐업으로, 화인케미칼에 산소, 수소, 스팀 등을 공급하는 여수산단 내 화학공장들도 적지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화인케미칼 노조는 지난 7일 상여금, 학자금, 주택자금 등 30억여 원을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자 노사 단합 이행을 촉구하면서 여수노동자청에 회사 대표를 고발한 바 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KPX화인케미칼=폴리우레탄의 기초원료인 TDI(Toluene Diisocyanate)를 비롯해 TDI 유도체인 L-75, IL-50 등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다. 지난 1978년 자본금 190억원으로 문을 열어 지난해에만 2916억원의 매출을 올린 바 있다. 광주·전남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13개사 가운데 하나다.

## 광주시 직원들 '캠코 사기극 발언' 사과 요구 성명에

### 광주시의회 사상 첫 예산심의 보이콧

광주시 공무원들이 이례적으로 시의원의 긴급 현안 질의 내용을 반박하며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자, 시의회 일부 상임위가 21일 광주시의 내년도 예산심의의 '보이콧'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가 아닌 관련 부서 직원들이 시의원의 질의를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이번이 처음인데다, 시의회가 이에 맞서 예산 심의를 '보이콧'한 것도 개원 이후 처음이어서 시와 시의회 간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광주시 문화관광정책실 직원들은 21일 성명을 내고 "지난 20일 시의회 정례회에서 홍인화 시의원이 캠코와 관련, '사기극' 운운한 발언 내용은 억지 주장"이라며 "편견과 왜곡된 시각에 의한 언어 폭력을 즉각 취소하고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광주시도 이날 '홍인화 시의원 현안질문에 대한 광주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홍 의원은 사기극 운운한 발언을 즉각 취소하고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광주시와 관계부서 직원들이 이처럼 성명을 발표하는 등 대대적으로 반발하고 나서자 광주시의회는 이날 열릴 예산심의의 '보이콧'했다.

행정자치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날 오후 예정됐던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전면 거부했다. 시의회는 또 22일 오전 9시부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연석회의, 의원총회 등을 잇따라 개최하고 이번 사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어서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조오섭 운영위원장장은 "시의원 발언에 대해 공무원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의회의 고유기능을 약화시키는 불순한 행동"이라며 "다만 현안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리는만큼 의원총회를 통해 향후 입장을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홍 의원은 지난 20일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 강연대 광주시장이 캠코 관련 미국측 회사에 기술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자금을 송금했다며 캠코나 LA테스트는 사기극이었다고 주장했다.  
/최권익기자 cki@kwangju.co.kr

상상해보세요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피부**  
셀-바이오 과학으로 매일매일 맑고 매끄럽게- 헤라 셀 에센스

바쁜 생활 속에서도 매끄럽게 빛나는 피부를 놓칠 수 없다면 헤라 셀 에센스를 시작해보세요. 헤라는 셀-바이오 과학을 통해 피부 활성화의 핵심, 생체수를 모사한 셀-바이오 플루이드 싱크를 개발하였습니다. 생체수의 다섯 가지 비일코드(아미노산, 에탄올, 글리세린, 수화제, 폴리머)를 연구한 헤라 셀 에센스-놀라운 피부변화를 느껴보세요\*

\*1일 사용 후, 사용자의 98%가 피부결이 매끄러워지고 96%가 피부가 맑아지는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Cell-Bio™ 피부 동화 포몰라  
일본 동경대학의, 근방의 연구소를 통해 피부의 미세한 생명을 모사, 피부에 빠르게 동화되어 활기찬 피부변화를 선사합니다.

**HERA**  
CELL ESSENCE  
Cell-Bio Fluid Sync™  
150 ml / 30 Days  
Amount per use : 2.5 ml.

Code	Efficy
Mo	Moisturizing
Acid	Exfoliating
Peptide	Rejuvenating
Super	Energy
Light	Transparency
	Finely

# HERA

\*유행병학이전이나 이오에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고객상담실 080-023-5454(수신지 요금부담) www.hera.co.kr